

## 제2차 「구성원 대토론회」 결과 보고

주제	글로벌대학 30 사업 관련 의견 수렴	
개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일시: 2024. 6. 5.(수) 18:00 ~</li> <li>- 개최장소: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정심화홀</li> <li>- 참석인원: 158명</li> <li>- 공동주관: 충남대학교, 교수회, 직원협의회, 조교협의회,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li> <li>- 사회자: 생명시스템과학대학 김승범 교수</li> <li>-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연구산학부총장 이승구, 기획처장 조철희)</li> <li>○ 교수회(회장 최인호, 부회장 김윤용)</li> <li>○ 총학생회(회장 이찬술, 임원 허연주)</li> <li>○ 대학원총학생회(회장 최종규, 임원 원승현)</li> <li>○ 직원협의회(회장 조성범, 고문 문병직)</li> <li>○ 조교협의회(회장 이재훈)</li> </ul> </li> </ul>	
1부 패널토론 (기조발언)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수렴의 필요성</li> <li>- 학생자치기구 설문조사 결과 통합에 대한 학생 반대 비율 약 80%임</li> <li>- 사업추진 과정 중 학생의 중요성 강조</li> </ul>
	대학원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임 테이블 공유의 필요성(명확한 일정 공유 부족)</li> <li>- 글로벌대학30사업의 중요성 및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강조</li> <li>- 연구 환경 개선, 재정적 지원, 학위 과정의 다양화 및 대학원생 복지 증진 요청</li> <li>- 내부 혁신 강조를 통한 글로벌대학30사업 참여 방안 제시 필요</li> </ul>
	직원 협의회	(직원협의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재정 문제 및 등록금 동결로 인한 고등교육 위기</li> <li>- 재정 위기 극복 방안으로써 글로벌대학30사업 선정 중요성</li> <li>- 글로벌대학30사업에 대한 논점을 살려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li> </ul>
	조교 협의회	(조교협의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교 역할 강조, 대학 운영 및 지원에 중요한 역할</li> <li>- 조교 고용 안정 방안 필요</li> <li>- 조교 교육 지원 및 정책 참여 강조, 복지 강화 요청</li> </ul>

	교수회	(교수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총장 주도 주도권을 잡지 못한 졸속 통합은 재정 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으며, 학교 내실화에 방만하였음.</li> <li>- 통합 재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요구함.</li> <li>- 혁신기획서상 독소조항 삭제 요청(한발대와의 합의 포함)</li> <li>- 총장 입장 표명 요구 및 통합 재검토 필요성 강조</li> </ul>	
	본부	(연구산학부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대학30사업의 필요성 및 지방대학 위기 대응의 필요성</li> <li>- 대토론회를 통한 구성원 의견 경청 중요성 강조</li> <li>- 구성원 의견 수렴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사학과 통합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수요조사 예정</li> <li>2) 글로벌대학30사업 참여에 대한 학과 의견 수요조사 예정</li> <li>3) 출연연과 벽 허물기 등 주요 혁신안에 대한 산학연 협력 발전 방안 수요조사 예정</li> </ol> </li> </ul>	
1부 패널토론 (상호토론)	질의 내용		답변 내용
	(교수회 부회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난번 통합을 우려하는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의견을 글로벌 대학30사업 본 계획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li> <li>2. 통합 기반 독소조항 관련(화학적 결합을 통한 학부 정원 20% 감축, 캠퍼스 재배치 등) 앞으로의 통합 진행 여부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본 계획서에 반영할 계획인지</li> </ol>		(기획처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제적 캠퍼스 재배치는 없으며, 유사학과 간 강제적 통합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글로벌대학30사업은 타 재정사업 및 대전시 지원 예산을 따져보았을 때 500억 예산의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재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li> <li>2. 화학적 통합,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20% 감하는 부분은 차후의 모습을 담았으며, 이는 구성원과 계속 논의할 예정이며, 독소조항, 정원 감축 부분은 1차 토론회 때 말한 의견과 동일함.</li> </ol>
	(총학생회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차 토론회 때 언급했던 물리적 결합 관련 타 캠퍼스 사례(고려대학교)와 달리 우리 학교와 한발대는 거리상 근접하며, 한발대 측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캠퍼스 분리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li> </ol>		(기획처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려대와 같은 분교 모델이 아닌 캠퍼스 모델인 상명대, 홍익대, 경상대 캠퍼스 등을 모델로 보고 있으며, 대교협에 질의를 하여 '학교에 유리하게 적용하여 입학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음.</li> </ol>

	<p>2. 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계획서가 전임 집행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글로벌 사업 선정 후 통합에 대한 논의가 불발되었을 때 사업비 환수 및 정부재정지업사업 불이익 등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p>	<p>2. 글로벌대학30사업 계획안이 전임 집행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수정을 할 수 없으나, 화학적 통합, 정원 감축, 전공자율선택제 등과 관련된 내용은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할 예정임. 출연연과의 벽 허물기 등을 통해 차별화된 내부 혁신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며, 물리적 통합은 1단계 통합이며, 추후 10~20년 후 점진적으로 화학적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p>
	<p>(대학원총학생회장)</p> <p>1. 전 집행부와 차별화된 현 집행부의 통합안, 내부 혁신안 등이 무엇인지</p> <p>2. 우리 학교의 예비 지정안이 교육부에 공시가 되어있는데 이 점이 경쟁이나 수정 등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떠한 내용을 더 포함할 것인지</p> <p>3. 다음 주 학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유사학과 통폐합, 캠퍼스 재배치 등의 의견과 관련하여 직원과 학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p>	<p>(기획처장)</p> <p>1. 전 집행부에 계획서상 수치가 높다고 생각되므로 현 집행부에서는 우선으로 충격을 완화하며 글로벌 사업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예정이며, 내부 혁신 관련 출연연 벽 허물기 등을 구체화할 예정임.</p> <p>2. 계획서 공개 등과 관련, 경쟁력 제고 위해 어떤 내용을 담아 느슨한 통합의 내용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지 노력하고 있음.</p> <p>3. 학과 의견 수렴 관련, 학생뿐만 아닌 교수, 직원 사이의 공감대 부분이 공유되어 전달되리라 생각하며, 의견을 받아보고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여 보완할 계획임.</p>
	<p>(조교협의회장)</p> <p>- 전공자율선택제 관련 학생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p>	<p>(총학생회)</p> <p>- 학생회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p> <p>1) 과실, 행정실, 행정자치기구 등 인프라가 마련이 안 되어있음.</p> <p>2) 기초학문 보호에 위협</p> <p>3) 계열별로 입학했을 경우 학과 성격에 따라 동 계열로 선택할 것인지 의문</p> <p>4) 무전공으로 입학하였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였을 때 자퇴율이 올라갈 수 있음.</p>

<p>(조교협의회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공자율선택제 시행에 따라 1학년 학생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li> <li>2. 대학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일반학과 입장에서 재학생 수 변화에 따라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li> <li>3. 조교 재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은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li> </ol>	<p>(본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시행 세칙 및 실행 계획안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중도 탈락률 등을 고민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li> <li>2. 재정적 부분과 관련하여 육성 및 글로벌 대학30사업이 수주되면 학생과 교수를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릴 계획임.</li> <li>3. 조교 재배치 관련 전임 집행부의 기본 계획안을 분석 및 보완하여 이른 시일 안에 안내할 계획임.</li> </ol>
<p>(직원협의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회는 전 집행부에서 재정 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 학교 발전기관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이 없다고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수회 의견은 어떤 게 있는지(교수회가 생각하는 재정 효율화 자구 노력, 학교 발전기관 창출 노력 등은 무엇이 있는지)</li> </ul> <p>(답변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을 확장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재정확보 측면에서 정부재정지원사업 신청 관련 학교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적음.</li> <li>-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뿐만 아닌 더 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글로벌 대학30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li> </ul>	<p>(교수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관련하여 본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들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전임 집행부에서 확장경영을 반복하였으며, 건물 등을 건축하는 데에 매진하고, 밤에도 학교 건물의 불을 켜놓는 등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한 재정 효율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음. 또한 공무직 파업 시 부분적 요구를 수용하여 인건비 예산을 줄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li> </ul> <p>전임 집행부에서 1조 이상 정도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외부에 진출하고 건물, 시설 등의 예산에만 치중하여 학교 재정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임.</p>
<p>(교수회 부회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계속할 것인지 (글로벌대학30사업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예산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경상비로 충당할 수 있는지)</li> </ol>	<p>(연구산학부총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 집행부의 합치 끝에 이번에는 통합으로 글로벌 30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li> </ol>

	2. 내년 내부혁신으로 글로벌대학30사업을 지원하면 선정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기획처장) 1.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대학30사업도 경상비 부분으로 넘길 수 있는 예산이 상당 부분 있으며(검토상 육성사업 기준, 올해 전반기 38억 정도), 기본적인 예산은 구성원 조직 발전 학교 발전에 쓰일 것임. 2. 투표를 통해 통과하지 못하면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혁신 방안을 넣어 투표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글로벌 대학30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내부 혁신이나 연립 방안 등의 형태로 재도전할 예정이며 다만 내년 에 선정될 확률이 낮다는 것임.
자유토론	<b>질의 내용</b>	<b>답변 내용</b>
	(예술대학 홍○○교수) - 통합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투표로 물어볼 의향이 없는지	(기획처장) - 7월 말 제출 전에 통합 내용을 포함하여 글로벌대학30사업 실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구성원 찬반 의견을 조사할 계획임.
	(총학생회장) 1. 구성원 투표 전 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교명, 졸업장 등) 등에 대한 본부의 해결 방안이 있는지 2. 본 지정계획서에 현재까지 직능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지, 본 지정 계획서 초안은 언제까지이며, 구성원 의견 반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구성원 의견 수렴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획처장) 1. 교명 관련 본격적으로 한발대와 논의를 하게 되면 충남대학교의 교명을 살리기 위해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며, 졸업장 관련 국립대학통합기준 고시를 준용할 예정임. 2. 학생 소통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여러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임. 글로벌대학30사업 실행계획서 1차 안은 6. 15.(예정), 2차 안은 6. 28.(예정) 분과위원회에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위원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임. (예산 관련)학과 및 단대에서 요구하는

		<p>예산 및 프로그램 등을 수요 조사하고 있음.</p> <p>글로벌대학30사업 선정을 위해 27년에는 통합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하므로 최소한 양교의 동일 학과에 대한 담론을 담기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음.</p> <p>내부 혁신으로 출연연 벽 허물기 등 관련 정책에 대하여 더 좋은 의견을 포함하기 위해 의견 수요조사를 하고 있음.</p>
(대학원총학생회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사회와의 이해관계 아래에 본부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30사업, 라이즈 사업 등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방안, 대책 등이 있는지</li> <li>2. 대학원생 지원 관련 연구 실험 관련 인프라 구축, 학위제도 등 본부에서 고민하는 방안 등이 있는지</li> </ol>	<p>(기획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대학은 대전광역시와 교섭할 수 있는 규모의 기관이며, 라이즈 등 사업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지는 자율성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겠음.</li> <li>3. 글로벌대학30사업, 육성, 라이즈 사업 등에 대학원 연구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골고루 담아낼 예정임.</li> </ol>
(직원협의회 고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수회가 말하는 소통의 범위가 무엇 인지</li> <li>2. 의견이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지</li> </ol>	<p>(교수회 부회장)</p> <p>- 경상비에 대한 고민 및 재정보로도 필요 하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합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p>
(사회과학대학 ○○○학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내실화를 갖춘 통합 요구</li> <li>2. 졸업장 관련 고시 6조 2항 예외 사항에 대하여 질의</li> <li>3.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의 연구 및 후학양성을 위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li> </ol>	<p>(기획처장)</p> <p>- 글로벌대학30사업 실행계획서는 중간중간 최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통합은 내년 5~6월까지 충분한 논의를 통한 결정을 할 것임.</p>

	<p>(자연과학대학 조○○ 교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과 의견 수렴의 과정 및 일정 등을 공유해 주기를 요청</li> <li>2. 한발대와 통합 기반 계획서를 낸 상황에서 학과에서 캠퍼스 재배치 및 학적 통합을 거부하였을 경우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지</li> <li>3. 우리 대학과 순위가 높거나 어느 정도 대등한 대학과 연합 또는 통합을 고려할 생각이 있는지</li> <li>4. (추가 질의)학술교류 등 충분한 교류가 있는 통합 대상(경북대 등)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기를 요청</li> </ol>	<p>(기획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사학과 간 강제적 통합은 없으며, 다음주부터 유사학과 통합논의 진행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할 예정</li> <li>2. 7개의 동일학과, 20개의 유사학과가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유사학과 간 통합은 없다'라는 대전제에서 양 캠퍼스를 병립하는 것을 진행하여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통합을 진행할 예정</li> <li>3. 충청 광역권에 충남대보다 상위 대학이 없으며, 충청, 대전, 세종을 아우르는 수도 대학의 비전으로 지속적 논의를 할 것이며(계획서상 27년 공주대와 연립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통합 전제로 계획서를 낸 현 상황에서 통합을 철회하고 연립으로 낼 수는 없는 상황임.</li> <li>4. 여러 지원책 등을 고민하고 가능성을 열어 검토하고 있음.</li> </ol>
	<p>(공과대학 손○○ 교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임 집행부가 2년 동안 진행해 왔던 것에 대한 고찰이 무엇인지</li> <li>2. 본 계획서 제출 전 한발대와 의견을 전달하였는지</li> <li>3. 유사학과, 캠퍼스 특성화 안 해도 되는 근거는 무엇인지</li> <li>4. 통폐합, 캠퍼스 특성화를 하지 않고 교육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li> <li>5. 통합을 당장 내년, 내후년에도 진행할 수 있는데 통합 일자를 27년 3월로 지정한 이유</li> <li>6. 27년 3월로 지정할 경우, 거버넌스의 문제가 예상되며, 여러 부분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요청</li> </ol>	<p>(기획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2년 통합에 관한 3건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연구 중심대학이나 학부 정원, 대학원 등을 고려한 많은 부분을 숙지하고 있으며 내부 혁신의 1건의 용역보고서도 검토하였음.</li> <li>2. 여러 루트를 통하여 의견 개진 중이며, 집필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li> <li>3. 원칙적으로 통합을 전제로 하며 두 개의 캠퍼스를 병렬하면서 점진적인 통합을 하고자 함.</li> <li>4. 교육부 담당자 등과 논의하여 장기적 통폐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할 예정임.</li> <li>5. 계획서를 낸 후 신입생을 뽑는 시기가 27년도이며, 그 정도의 시간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27년으로 지정했음.</li> <li>6. 일정 조율 등을 고려하여 논의해보겠음.</li> </ol>

	<p>(○○○대학원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외에 다른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li> </ul>	<p>(기획처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이나 재원 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우선 이번 글로벌대학30사업계획서에 충실한 후 구성원들과 미래 비전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하겠음.</li> </ul>
	<p>(총학생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합 전제의 수정계획서에 관한 학생 구성원 공유의 필요성</li> <li>2. 6. 28.자 공개 예정인 2차 계획서 관련 학생들의 방학 일정과 겹쳐 학생 의견 수렴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지</li> <li>3. 통합과 관련하여 추후 논의한다는 것은 한발대와 공유된 것인지</li> <li>4. 구성원 반발로 인해 통합이 무산될 경우, 사업비 환수 등과 관련하여 대안이 있는지</li> </ol>	<p>(기획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충북대-교통대, 부산대-부산교대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화학적 통합 등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야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li> <li>2. 3차 대토론회와 학과, 대학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6. 28.자보다 2차 계획서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어려움.</li> <li>3. 7월 초, 또는 중순 정도 글로벌대학30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투표가 있을 예정</li> <li>4. 여러 사안에 대하여 구성원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하겠음.</li> </ol>
	<p>(총학생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대학30사업이 학우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li> </ul>	<p>(기획처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구성원도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며, 다음 주부터는 통합논의 시작의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수요조사를 할 예정</li> </ul> <p>(연구산학부총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상의 문제로 계획서를 만들어 가면서, 계획서에 대한 찬반, 수용 여부 투표를 진행할 예정</li> </ul>
<p><b>총장님 말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글로벌대학30사업 실행계획서는 통합 전제의 계획서라는 점은 변함이 없음.</li> <li>- 글로벌대학30사업뿐만 아닌 통합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개진할 것을 제안함. (시기는 본부, 교수회, 총학생회 등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li> <li>- 우선, 통합으로 인해 우려되는 점들, 통합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점의 극복 방안 등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하겠음.</li> <li>- 3차 대토론회를 포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음.</li> </ul>	



기타

-개최 사진

